동학농민혁명 연구 제4호(2025)
2025. Vol.4 pp. 37~65 https://doi.org/10.69636/JDPR.2025.4.2

김동규 기증 유물로 본 남원지역 천도교

성주현*

〈목 차〉

머리말
Ⅰ. 김동규 기증유물 자료의 분류
Ⅱ. 기증유물로 본 남원지역 천도교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김홍기-김종환-김동규 3대에 이어져 오는 동학 천도교 집안에서 보존하고 있던 자료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한 유물을 토대로 시기별 천도교 활동을 살펴보고 있다.

첫째는 김홍기-김종환-김동규로 이어지는 동학·천도교를 신앙해 온 3대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김동규에 의해 2017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되었다. 기증 유물은 천도교 관련 자료 등 646건 762점으로 2,467매로 상당한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기증 유물의 유형별로는 공문류가 가장 많으며 문헌류, 증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해 "대다수가 천도교 중앙총부에

* 천도교중앙총부 상주선도사

도 없는 천도교 관련 자료들로 대대적인 조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는 기증 유물을 통해 본 남원지역 천도교의 활동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해방 후 1960년대까지 확인된다. 대한제국 시기는 천도교단에서 발행한 인장과 교리서를 통해 남원지역 천도교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는 남원교구의 활동 외에도 신간회 등 사회활동을, 해방 후에는 천도교단의 분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제어 : 천도교, 남원, 기증유물, 동학, 신간회, 동학농민혁명

머리말

> 규암圭菴, 남원군 이백면 계산리. 남원교구장(1980.4), 남원교구추진위원장(1990), 임실교구 흥신포 도훈(2001), 남원교구추위장(2004), 성신포 도훈(2007)[1)]

위의 인용문은 2017년 9월 28일과 10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자료를 기증한 김동규(金東圭)에 대한 이력이다. 김동규는 천도교인으로 3대째 신앙생활을 한 종교인이다. 그는 1대 김홍기(金洪基), 2대 김종환(金宗煥, 金鍾煥)에 이어 동학-천도교로 이어져 온 남원지역 동학 및 천도교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며, 남원 동학과 천도교의 역사와 함께 하였다.

1대 김홍기는 1856년 6월 16일 남원군 오수면 신기리 탑동에서 태어났으며, 33세 때인 1889년 장인 최찬국(崔贊國, 崔鳳成)의 전교로 동학에 입교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일어나자 족하 김종학과 함께 백산대회에 참가하였고, 김개남이 남원에 주둔하였을 때는 오른팔 역할을 한 것

1) 동학천도교인명사전연구회, 개벽라키비움, 2019, 『동학·천도교인명사전』(제Ⅱ판), 모시는사람들, 228쪽.

으로 알려졌다. 운봉 여원치 전투와 남원성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포도대장 이응백에게 피체되어 1895년 2월 14일 남원시장에서 포살당하였다.[2] 2대 김종환은 김홍기의 차남으로 1892년에 태어났으며 3·1운동 당시 전주에서 독립선언서를 받아 순천과 여수까지 전달하는 책임을 맡아 수행했다고 한다.[3] 해방 후 1945년 12월 23일 호남지역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천도교중앙교회를 조직하고 이듬해 1946년 4월 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구성할 때 종법사에 선임되었다.[4] 3대 김동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천도교 남원교구장, 남원교구추진위원장, 성신포 도훈 등으로 활동하였다.

김동규 기증유물은 646건, 762점 2,467매로 2017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되었다. 이들 기증유물 중 가장 이른 시기가 1906년이라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없으며,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김홍기-김종환-김동규 3대에 이어져 오는 동학, 천도교 집안에서 보존하고 있던 자료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한 유물을 토대로 시기별 남원지역 천도교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5] 다만 기증 유물이 너무 방대하다는 점에서 수량이 적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는 유물을 중심으로, 그리고 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방 후 현대 시기는 중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천도교 남원교구의 동향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

2) 『동학·천도교인명사전』(제Ⅱ판), 681쪽. 김홍기 집안에서 김홍기를 비롯하여 김낙기, 김영기, 김종문, 김종학, 김종태, 김종순, 김태옥, 김성주, 김종오, 임종호, 임성윤, 김인기 등 16명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3) 「남원지역 동학 활동 자료 발굴」, 『전북신문』 1966년 3월 2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4) 『천도교임실교구사』, 천도교임실교구, 포덕 114(1973), 30쪽.

5) 본고는 김동규 기증유물 중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지만, 동학농미혁명 관련 자료는 1건도 확인할 수 없었다. 부득히 기증된 유물이 천도교 관련 자료라는 점에서 남원지역 천도교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음을 양해바란다.

Ⅰ. 김동규의 기증 유물의 분석

김동규는 1966년 3월 자신의 집에 있던 『종리원사 부 동학사』와 『순교약력』를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해 전라문화연구소 이진영은 “구술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어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나 남원지역의 동학사와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에 대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6] 이후 김동규는 2017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천도교 관련 자료 등 646건 762점으로 2,467매를 기증하였다. 김동규가 기증한 자료를 연도별, 시기별, 판본별, 천도교단 관련별, 종류별 등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증한 자료를 연도별로 살펴보자. 김동규가 기증한 자료는 1906년부터 1986년까지 생산된 것이다. 이 기간 중에는 1910년, 1915년 등과 같이 자료가 없는 연도도 적지 않다.[7] 김동규 기증 유물의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기증 유물의 연도별 분류

연도	수량(건)	연도	수량(건)	연도	수량(건)
1906	1	1933	11	1967	22
1907	3	1935	2	1968	25
1908	3	1939	1	1969	69
1909	2	1940	1	1970	17
1911	2	1945	3	1971	38

6) 1966년 3월 21일, 「남원지역 동학 활동 자료 발굴」, 『전북신문』.

7) 기증자료가 없는 연도는 1910년, 1915년, 1917년, 1919년~1920년, 1922년, 1929년, 1934년, 1936년~1938년, 1941년~1944년, 1951~1952년, 1955년~1956년, 1958년, 1962년, 1977년~1979년 등이다. 다만 연도 분명하지만 여러 해를 기록한 것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가 있다

연도	수량(건)	연도	수량(건)	연도	수량(건)
1912	1	1946	1	1972	77
1913	1	1947	9	1973	10
1914	1	1948	1	1974	22
1916	1	1949	2	1975	2
1918	1	1950	3	1976	2
1921	4	1953	2	1980	16
1923	3	1954	1	1981	4
1924	3	1957	1	1982	9
1925	1	1959	1	1983	8
1926	3	1960	3	1984	1
1927	6	1961	1	1985	4
1928	1	1963	39	1986	1
1930	1	1964	34	1960년대	12
1931	6	1965	43	1970년대	1
1932	10	1966	33	미상	60
계	54	계	192	계	400
합계					646

〈표 1〉에 의하면 1972년이 77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1969년이 69건, 1965년이 43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30건 이상 되는 해는 1969년(39), 1971년(38건), 1964년(34건), 1966년(33건)이며, 20건 이상 되는 해는 1968년(25건), 1967년과 1974년(22건), 1974년 22건이다. 이들 11개 햇수의 기증 유물은 402건으로 전체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그리고 연도 미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60건으로 적지 않았다.

〈표 1〉의 연도별 분류를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현대의 시기로 구분하면 〈표 2〉과 같다.

〈표 2〉 기증 유물의 시기별 분류

구분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현대	미상	계
수량(건수)	9	65	548	24	646

〈표 2〉에 의하면, 대한제국기 9건, 일제강점기 65건, 현대 548건, 시기 미상 24건으로 해방 후 현대 시기 기증 유물이 전체의 5분의 4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에도 천도교단 내지 남원교구에서 생산된 자료가 적지 않았음에도 잘 보존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해방 후 호남 지역 구파를 중심으로 임실에 조직된 천도교중앙교회에서 생산된 자료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편 기증 유물은 판본별로 분류하면 인쇄본과 필사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기증 유물의 판본별 분류

구분	인쇄본	필사본	기타	계
수량(건수)	455	189	2(사진, 旗)	646

〈표 3〉에 따르면, 인쇄본은 455건, 필사본은 189건이다. 이외에 사진과 궁을기가 각각 1건이 있다. 인쇄본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쇄본은 문헌, 공문 등이다. 필사본의 경우 천도교단에서 발행한 교서나 중앙 교단에 보고한 공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인쇄된 서류를 필요한 부분만 필기도구로 작성한 것이 적지 않았지만, 필사본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기증 유물을 천도교와 관련된 기관에서 생산한 것을 교단으로, 외부에서 생산된 것으로 분류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기증 유물의 천도교단 내외 분류

구분	교단	교외	기타	계
수량(건수)	632	14	0	646

〈표 4〉에 의하면, 천도교와 관련된 기관, 인물이 생산된 기증 유물은

646건 중 633건으로 전체의 98%에 해당된다. 이는 몇몇 자료를 제외하고 천도교와 관련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천도교단과 관련이 직접 관련이 없는 기증 유물은 1924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보통학교 『수신서(권6, 아동용)』, 「신간회 강령 급 규약」, 1953년 전라북도가 제작한 전라북도 농업지도요원 제15기생 관련 유인물, 1954녀에 작성된 농업교도원 양성생 명부, 1959년 남원중학교장 이대균이 김동규에게 발급한 남원중학교 졸업장, 1974년 남평초등학교 육성회장이 김학연에게 발급한 김윤숙 육성회비 영수증, 1974년 육군 제8173 부대장이 김동규에게 발급한 교육훈련 통지서, 1974년 남원군수 채의석이 김학연에게 발급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1974년 제일은행 지점장이 김동규에게 발급한 김예순 육성회 월회비 영수증, 1974년 제일은행 지점장이 김동규에게 발급한 김예순 중1 교과서대 영수증, 승경도 판 등이다.

끝으로 기증된 유물을 문헌, 증서, 공문 등의 유형별로 분류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기증 유물의 유형별 분류

구분	문헌류	증서류	공문류	기타	계
수량(건수)	194	50	381	21	646
비고	도서, 기념사, 성명서 등	증장, 교첩 등	공문, 통신문, 통지서 등	간찰, 사진 등	

〈표 5〉에 의하면, 공문이 381건으로 가장 많다. 공문류는 서울의 천도교중앙총부, 임실의 천도교중앙교회,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 남원교구 등에서 생산된 공문, 통신문, 통지서, 각종 문서 등이다. 문헌류는 194건으로 천도교단에 발행한 도서 등 책자를 비롯하여 기념사, 성명서 등을 포함하였다. 증서류는 50건으로 증장, 포장증, 교첩 등 이른바 임명장이다. 기타는 21건으로 간찰과 사진, 궁을기 등을 포함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동규가 기증한 자료는 천도교중앙총부가 설립된 1906년부터 1986년까지 80여 년간 생산된 각종 문헌류와 증서류, 공문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천도교단 외에는 김동규 등 개인과 관련된 것으로 영수증, 농업교육 관련 자료 등이 일부 포함되었다. 이들 자료에 대해 "대다수가 천도교 중앙총부에도 없는 천도교 관련 자료들로 대대적인 조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Ⅱ. 기증 유물로 본 천도교 활동

1. 대한제국 시기

구한말과 대한제국 시기는 1876년 10월부터 일제에 강점되기까지인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 동학 교단은 1892년과 1893년 교조신원운동, 1984년 동학농민혁명, 1904년 갑진개화운동, 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선포, 1906년 천도교중앙총부 등 격동의 시기를 겪었다. 특히 전근대적 교단을 이른바 근대적 교단으로 전환한 시기로 무엇보다도 인적 조직에서 기관조직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천도교는 1906년 2월 천도교중앙총부가 설립된 직후 〈천도교대헌〉을 제정 공포하였고, 종령(宗令)을 기반으로 교단을 운영하였다. 당시 천도교는 중앙인 서울에 중앙총부를, 지방에는 군 단위로 교구를 설치하였는데, 현재의 남원지역에는 남원군교구와 운봉군교구가 설립되었다. 남원군교구는 장남선, 김종황, 박진경, 유태홍, 박세춘, 김준식 등이 1906년 6월 19일에 고도정리(古道井里)에 교구를 설치하였다가, 1907년 1월 둔덕면 관동리(館洞里) 이기동의 집으로 이전하였다가 이해 12월 12일에 오수 서촌리(西村里) 김진용의 집으로 이전하였다. 이듬해 1908년 5월 7일 오수상가(獒樹商賈)의 상무소로 이전하였다가 8월 11일에는 오수 박영환의 집으로 다시 이전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잇따르자 장남선, 이기동, 김종황의 발기로 하영석, 박진경, 유태홍, 김성재 등의 찬조와 주동으로 의연금을 모아 1909년 오수 차후리 김현대의 집을 매입하고 교구실을 마련하였다. 이어 11월 6일에는 교리강습소를 설립하였다.[8] 운봉군교구는 남원군교구보다 늦은 1907년 2월 김성재의 집에 설립되었고, 1909년 2월 김진택을 선발하여 중앙총부 교리강습소에 유학시켰다.[9] 그리고 이 시기 남원군교구과 운봉군교구의 임원진을 정리하면 〈표 6〉 및 〈표 7〉과 같다.[10]

〈표 6〉 1906년~1909년 남원군교구와 운봉군교구 임원

시기	교구장	이문원	전제원	금융원	서응원	강도원	순회교사
남원군교구							
1906. 06.19	장남선	박진경	윤상수	김종황	김준식		
1907. 12.12	이기동	이기원	박진경	김종수	박희영	김종황	황남현
1908	이기동	이기원	박진경	김종수	박희영	김종황	김성재
1909. 01.10	이기동	이기원	박진경	박진경 박희영	공선원	유태홍	김성재
운봉군교구							
1907~ 1909	김성재	김진택	김희중	이종칠	임석택		

〈표 7〉 1906년~1909년 남원군교구와 운봉군교구의 면 전교사

남원군교구								
둔덕면	대산면	주생면	덕과면	보절면	사동리	이백면	산동면	지사면
김종웅 (1906. 06)	박기영 (1906. 06)	강동일 (1909. 01)	황종택 (1906. 06)	장경기 (1906. 06)	조규열 (1907)	박희영 (1906. 06)	박세춘 (1906. 06)	최한수 (1908)

8) 『남원군종리원사』.

9) 『남원군종리원사 부 운봉군교구사』.

10) 〈표 6〉과 〈표 7〉은 『천도교회월보』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남원군교구								
둔덕면	대산면	주생면	덕과면	보절면	사동리	이백면	산동면	지사면
양재영 (1909)	김영선 (1908. 04)		하종섭 (1907. 09)	황현주 (1907. 12)	이종기 (1909. 01)	유태홍 (1909)		
				강영귀 (1908. 12)		김용두 (1909)		
				강성종 (1909. 06.)		김봉신 (1909)		
운봉군교구								
산내면	김봉섭, 김병구, 김상정				동면	김동휘, 황두현		

이 시기 기증 유물에 의하면 김희철(金禧澈)은 봉훈(1906.11·1909. 09), 3등 포장(1908.06), 운봉군교구장(1908.11), 예비교훈(1909.11) 등의 인준장과 포장을 받았다. 이 봉훈과 교훈은 연원 조직의 임원에 해당된다. 그런데 김희철은 1908년 11월 25일에 운봉군교구장으로 선임하는 인준장을 받았지만 『남원군 종리원사 부 운봉군교구사』에는 누락되었다. 남원군 지역에는 남원군교구(1906)와 운봉군교구(1907) 두 개의 교구이 설립되었으나 운봉군교구는 1913년 3월 남원군교구로 합병되었다.

또한 이 시기 천도교중앙총부는 일반 교인에 대한 천도교의 이해와 일반사회에서 천도교를 포교하기 위해 각종 교리서를 발행하였다. 당시 발행된 교리서는 『대종정의』, 『무체법경』, 『관감록』, 『성훈요의』, 『천도교문』, 『천도교전』, 『천약종정』, 『동경연의』, 『삼수요지』 등이었다. 이 중 기증 유물에는 『천약종정』, 『천도교전』, 『성훈요의』, 『동경연의』 등이 포함되었다. 『동경연의』는 천도교 핵심 경전인 『동경대전』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한 최초의 해의서이다. 이 기증 유물은 필사본으로 당시 교인들이 인쇄본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필사한 것이다. 『천약종정』은 초기 천도교 즉 동학의 교서로써 수운 최제우에서 해월 최시형,

의암 손병희로 이어지는 교회사를 간략하게 기록한 역사서이다. 이 책은 추후 오상준이 1910년대 『천도교회월보』에 연재한 「본교역사」에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천도교단에서 발행한 교리서는 남원군 지역에까지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천약종정』은 인쇄본과 필사본 두 종류가 있는데, 필사본 후미에는 당시 천도교중앙총부가 지방교구에 발송한 종령(宗令) 일부가 필사되어 있다. 이러한 필사는 당시 교인들이 부족한 인쇄본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학습을 하기 위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김희철 운봉군교구장 인준장(1908년 10월)

2.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기증 유물은 대체로 1910년대부터 1930년대에 해당한다. 이 시기 남원군에는 남원군교구(종리원)이 유지되었는데 대부분 포장과 인준장이며, 그 외 교리서와 방명록이 있다. 이 시기 남원군교구(종리원)의 임원 현황과 1910년대 운봉군교구의 임원은 〈표 8〉과 같다.

〈표 8〉 1910년~1930년대 남원군교구(종리원) 및
1910년대 운봉군교구 임원 현황[11)]

남원군교구(종리원)										
교구장	이문원	전제원	금융원	서응원	공선원	강도원	순회교사	전교사	서기	의정원
박진경 김종황 김진황 하영석 유태홍		유태홍 김성재 신창우 강동일	김현옥 정기준 김현대 배광조 유태홍 박용래 김봉연		유태홍 강동일 김현대 김종황 정기준 김경연	이기동	김희준 박진경 김성재	박용래 김용두 황현주 김영근 홍위일 하영서 장경두 박래호 김종기 장영수 문경신 신용우 박성래 문경록 신권화 박권영 김봉연 김창길 서정덕 장경일 성해룡 정봉기 하영서 형봉룡 강재득 윤상열	김경원 최병헌	최규섭

11) 〈표 8〉은 『남원군종리원사』와 『천도교회월보』의 「휘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종리사	포덕원	서무원	경리원	주임 종리사	면 종리사	위원	감사원	포덕 과대표 위원	서무 과대표 위원	경리 과대표 위원
이강전 신용우 조기일 박정순 김기원 정기준 김병구 홍위일 박준기 박병득 신기업 박노원 김경봉	강동술	최병헌	정기준	최병현	하영서 양재봉 임만수 채학순	최병현 정기준 신용우	유태홍 박진경 김성재	정기준	유종석	강재득
감사원	**종리 원장**	**성도집**	**경도집**	**신도집**	**법도집**	**지도집**	**교장**	**현기원**	**공선원**	**금융원**
박용래 장경일	박용래	강동일	신창우 신용우	유종석	박영기	정봉기 홍위일	유종석	이영옥	박영기	박용래
전제원	**심계원**	**전교사**								
신용우	김창길	문봉주 신기업 김종환 박병득 이기홍 박정순 김재현								
운봉군교구(1910년대)										
김희철 김성재			임석택		김동철					

〈표 8〉의 남원군교구(종리원)의 임원 중 기증 유물에서는 김성재 운봉교구장(1911, 1913), 남원군교구 전제원(1914), 남원군 순회교사(1918), 남원군종리원 감사원(1926), 남원군 순회위원(1926) 등이 확인되고 있다.

김성재는 이외에도 연원회에서 발행하는 봉훈(1916), 도훈(1923)과 춘암 박인호가 발행한 포장인 천훈은장(1926)과 도호(1927), 중앙종리원이 발행한 포덕사(1926)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활동한 김성재에 대해 『동학천도교인명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1874년 10월 16일 임실군 임실면 성가리 출신. 갑진개화운동에 황두현 김병구 등과 참가하여 활동, 자가에 운봉성화실을 설치(1907.12), 남원교구 강도원(1910), 남원군 운봉교구장(1911-1914.6), 남원교구 전제원(1914.8-1918.4), 강도원(1918-1919.30, 1919년 3월 2일 남원군 남원면에서 남원교구장 유태홍으로부터 독립선언서 9매를 전해 받고 유(종)석 최병현 등과 함께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게시판을 비롯하여 곳곳에 붙이는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4월 8일 징역 6개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대신사백년기념회원(1924), 남원군 감사원(1926.4) 등을 역임하였다. 1928년 12월 9일 환원하였으며 정부로부터 1993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받았다.[12]

김성재는 임실 출신이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원지역에서 천도교 활동을 하였다. 김성재는 천도교 활동뿐만 아니라 3·1운동에도 참여하였다. 3·1운동 당시에는 전주대교구에서 3월 2일 남원군교구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남원군 내 주요 지점에 부착하기로 하였는데, 교구장 유태홍으로부터 독립선언서 9매를 받은 김성재는 유종석, 최병현과 함께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등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8개 장소에 부착하였다. 이로 인해 김성재는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13] 김성재뿐만 아니라 유태홍, 유종석, 최병현, 김덕인, 황석현, 문경록, 이기원, 이기동, 윤상윤, 황동주 등 남원군 천도교인은 만세시위를 위해 남원군 관내에 독립선언서를 부착하였다. 이로

12) 『동학천도교인명사전』(제Ⅱ판), 361쪽.

13) 「김성재 판결문」;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인해 일경에 곧바로 피체됨에 따라 만세시위를 주도하지는 못하였지만 4월 남원지역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는데 기여하였다.

기증 유물에는 김성재 외에 김병구의 천훈1등장(1921)과 특신기념장(1923), 남원군종리원 지방위원(1925), 김종환의 남원군교회 전교사(1933) 및 안민섭의 천훈동장 포장(1926), 김기주의 남원종리원 위원(1927)과 해월신사백년기념회 위원(1927), 우창정의 천훈은동 포장(1927), 유환화의 내수도 특성 포장(1930) 등이 있다. 김병구는 남원군 운봉면 출신으로 1904년 김성재, 황두현 등과 함께 갑진개회운동에 참가하였으며 1924년 남원군종리원 종리사로 활동하였다.[14] 김종환은 대접주 김홍기의 아들로 1864년 9월 1일 임실군 오수면 신기리에서 태어났다. 갑진개화운동과 3·1운동에 참가하였으며 대신사백주년기념회원(1924), 교훈, 신훈 등으로 활동하였다.[15]

1924년은 천도교를 창명한 수운 최제우의 탄신 100주년으로, 천도교단에서는 출세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위해 성금을 모금하였다. 천도교중앙종리원은 전국적으로 대신사출세100년기념회를 조직하였는데, 남원군종리원에서도 기념회를 조직하고 성금을 모금하는데 적극 참여하였다. 성금자와 금액은 정리한 방명록을 남겼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16]

〈표 9〉 남원군종리원 대신사 출세 백년 기념 성금자 명단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유태흥	1원	양태화	1원	유종석	1원	유진	1원	유호	1원
김응두	1원	최용화	1원	박래호	1원	김도익	1원	박영기	1원
박병길	1원	양재봉	1원	오석준	1원	박재덕	1원	박문근	1원

14) 『동학천도교인명사전』(제Ⅱ판), 272쪽.

15) 『동학천도교인명사전』(제Ⅱ판), 564쪽.

16) 1924, 『대신사출세100년기념회방명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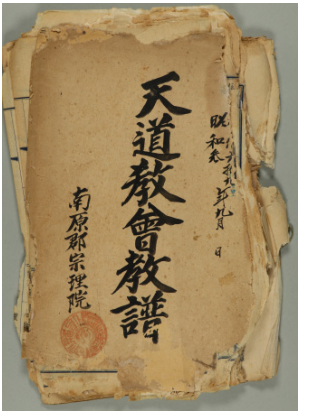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박수대	1원	허정	1원	이강전	5원	김강화	1원	김경연	1원
김종환	1원	이기동	1원	이강무	1원	박진경	1원	박정순	1원
박창문	1원	박세충	1원	이세화	1원	박봉안	1원	김봉화	1원
박태판	1원	박판석	1원	김유원	1원	김명식	1원	김영근	1원
김성재	1원	김경수	1원	장경일	1원	강일화	1원	장경두	1원
박두화	1원	장형수	1원	강성종	1원	강영만	1원	황현주	1원
김창길	12원	유창화	1원	김태규	1원	김태화	1원	김재현	1원
황재화	1원	황석현	1원	황동주	1원	성해룡	1원	정기준	1원
김기화	1원	진준화	1원	정택주	1원	정봉기	1원	임만수	1원
이영옥	1원	이종기	1원	이종순	1원	문경신	1원	박용래	1원
신창우	1원	신양식	1원	신용우	2원	양용화	1원	정우화	1원
신기봉	1원	신경욱	1원	신태우	1원	신병우	1원	김만옥	1원
김용문	1원	윤재선	1원	강동일	1원	김일화	1원	강기홍	1원
강재득	1원	강재인	1원	심성록	1원	최병현	1원	최순정	1원
최순욱	1원	홍위영	1원	홍위일	1원	홍규섭	1원	조기일	1원
김공현	1원	이두인	1원	서정덕	1원	김석진	1원	정진화	1원
허탁	1원	이봉의	1원	박흥래	1원	강병기	1원	윤종모	1원
김동섭	1원	강영연	1원	서기종	1원	강재순	1원	104명	120원

〈표 9〉에 의하면 대신사 출세 100년 기념 성금에 104명이 참여하였으며 금액은 120원을 모금하였다. 남원교구를 포함하여 전국 교구 천도교인의 성금으로 대신사출세백년기념관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위의 방명록에는 해월 최시형 탄신 100주년을 1927년에도 기념회를 조직하고 성금을 모금하였다. 해월 최시형 탄신 100주년 기념 성금 모금에는 15명이 참여하였고, 모금액은 25원이었다. 참여자는 〈표 10〉과 같다.

기증 유물 중 일제강점기 남원지역 천도교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는 남원군종리원의 교보, 연원록인 문성포의 포덕록과 건설록이다. 교보는 남원군종리원의 교인 현황, 문성포 포덕록과 건설록은 남원군종리원의 연원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1928년에 작성된 교보에 의하면 유태홍 등 71호, 남 196명, 여 152명으로 교인 수는 총 348

〈표 10〉 1927년 해월신사 출세 백년 기념 성금자 명단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박재덕	1원	박문근	1원	유태홍	1원	유종석	1원	최병현	1원
신창우	1원	신양식	1원	신춘우	1원	신용우	1원	양용화	1원
신기봉	1원	강동일	1원	강재득	1원	윤재봉	1원	김희중	1원
김희준	1원	김창길	1원	김재현	1원	권태진	1원	김계원	1원
박수대	1원	박영기	1원	김만옥	1원	김종필	1원	홍위영	1원



〈그림 2〉 1928년 작성된 남원종리원의 「천도교회교보」

명이다.[17] 이는 당시 종리원의 교호 기준은 50호였다는 점에서 남원군 종리원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종리원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보

17) 1928, 『천도교회교보』, 남원군종리원, 남원군종리원 『천도교회교보』의 교호주는 유태홍, 김도익, 안시량, 최도현, 김용두, 허정, 유상룡, 김기춘, 박래호, 최병현, 홍위영, 최순일, 심성록, 홍위일, 우종원, 형한철, 양운만, 신창우, 신춘우, 신용우, 신병우, 김만옥, 장태문, 강동일, 강기홍, 강재득, 윤재봉, 이명근, 강재인, 윤재석, 장동식, 황영주, 김계원, 김용준, 김종환, 김창길, 김재현, 권태진, 성해룡, 강성종, 박영기, 박순기, 박세춘, 오석준, 김공수, 황정진, 최봉운, 김정곤, 유창석, 강상운, 안병권, 양재봉, 박동진, 박재덕, 박수대, 김희중, 김기주, 김희준, 김공현, 조기일, 서정덕, 이두인, 서유종, 박성래, 박흥래, 강경연, 강창귀, 이봉의, 김석진, 윤종모, 김귀만 등이다.

에는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생년월일, 입교연월일, 전교인, 주소 등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통해 전교인과 수교인의 포교 관계와 지역별 교인 분포 등을 파악할 수 있다.[18]

한편 기증 유물 중에는 「신간회 강령 급 규약」이 있는데, 이는 남원군종리원의 유태홍, 최병현, 유종석 등이 신간회 남원지회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기존의 알려진 「신간회 강령 급 규약」은 전단지 형식으로 양면에 인쇄된 것이 비해 이 기증 유물은 소책자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본문 15쪽, 표지를 포함하면 총 18쪽이다. 남원신간지회는 1927년 8월 12일 설립되었으며, 천도교인으로는 유태홍, 최병현, 유종석, 강재득 등이 지회장을 비롯하여 간사 등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남원지역 신간회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19]

이외의 기증 유물에는 『천도교서』와 『일반상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천도교청년회가 1921년 12월 교리강습회를 개설할 때 교재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 교리강습회에 남원군종리원에서는 최병현, 이강전, 유종석, 김영운, 정봉기, 강재득 등 6명을 파견하였다.[20]

3. 해방 후 현대 시기: 1945년~1986년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맞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천도교단은 분규에 휩싸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최린을 대표하는 신파(천도교중앙총부)와 이종린을 대표하는 구파(천도교중앙총부)로 분화되었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중반 신파와 구파로 분화된

---

1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제공해준 기증 유물 목록에는 '포덕록'과 '건설록'이 포함되었는데, 실제 자료에는 누락되었다. 이들 자료 역시 교인 현황과 포교 관계, 교인간의 혼인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 성주현, 2014, 「향암 유태홍의 생애와 민족운동」, 『일제하 민족운동 시선의 확대』, 아라, 387~394쪽.

20) 『남원군종리원사』.

천도교단은 1931년 합동되었지만(천도교중앙종리원) 2년만인 1933년 다시 신파(천도교중앙종리원)와 구파(천도교중앙종리원→천도교중앙교회)로 분화되었다. 분화된 상태로 10여 년 동안 각각 활동하던 신파와 구파는 1941년 다시 합동(천도교총부)을 한 바 있다.

해방 후 천도교단이 다시 분규가 시작된 것은 신파는 친일, 구파는 민족운동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파나 구파나 일제 협력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일제 전시체제기에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렇지만 구파는 신파를 친일 세력으로 인식하고 배척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직후에는 해방 전 합동되었던 교단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구파에서는 신파의 대표적 인물 최린에 대해 은퇴권고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최린은 은퇴를 거부함에 따라 1945년 10월 25일 개최된 전국임시대회에서 최린을 출교 처분하였다. 이를 계기로 천도교단은 다시 신파(천도교총본부)와 구파(천도교본부)로 분화되었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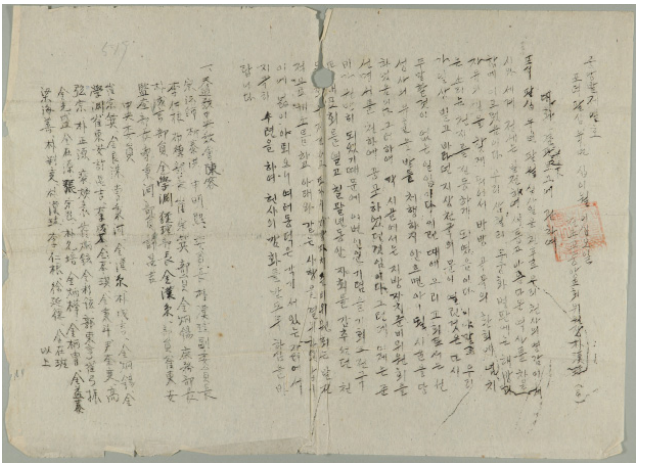
이러한 와중에 춘암 박인호를 4세 선생으로 추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파의 중심을 이루는 호남지역의 천도교인들은 '구파 정신(水月執義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1945년 11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는 남원지역 천도교인을 대표하여 유태홍과 김학연이 서명하였다.[22] 이어 호남지역 천도교 조직은 임실에 천도교중앙교회를 별도로 설립[23]함으로써 천도교단은 신파의 천도교총본부, 구파의 천도교본부

---

21) 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2006,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391~396쪽. 해방 후 천도교의 신파와 구파의 분화는 1947년 4월 2일 정기대회를 계기로 합동하였다.

22) 1945년 11월, 「성명서」. 성명서에는 남원 유태홍과 김학연을 포함하여 완도 신명희, 임실 최종기 김한경 박성언 김형석 김태순, 전주 조병하, 장수 김봉기, 군산 김광성, 영광 고현종, 장성 박정원, 광주 배환표, 서천 최궁진 등 15명이 서명하였다.

23) 천도교중앙교회는 1945년 12월 25일자 명의로 「사뢰는 말씀」이라는 통지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945년 12월 24일 임실에서 천도교중앙교회를 설립하는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림 3〉 1945년 12월 24일 개최된 천도교중앙교회의 전국대회 경과보고와 임원진 통지문. 임원진에는 남원교구의 유태홍, 김학연, 최병현 등이 선임되었다.

와 천도교중앙교회로 삼분되었다. 이해 12월 25일자 천도교중앙교회 첫 공문에 의하면 대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구성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종법사 유태홍 신명희
> 위원장 박한규
> 부위원장 이인근
> 포덕부장 최종기, 부원 김형석
> 서무부장 박성언, 부원 김학연
> 경리부장 김한사, 부원 최동안
> 감사부장 조병하, 부원 허우길
> 중앙위원 최종기 김양수 조병하 박한사 박성언 김형석 김학연 최동안 허우길 이성기 김봉기 김병두 윤규섭 고홍종 박정원 배환표 최병현 김채현 곽동형 최궁진 김광성 김재원 장종렬 박윤배 김병화 김병주 김익태 양해선 박판섭 박한규 이인근 서정덕 김재반[24]

24) 1945년 12월 25일, 「대회 경과보고에 관하여」(천중발 제1호), 천도교중앙교회.

임실에 본부를 둔 천도교중앙교회는 호남 일대 천도교 조직 즉 교구를 관장하였고, 1950년까지 유지되었다.[25] 남원교구는 천도교중앙교회에 적극 합류하였으며, 종법사 유태홍을 비롯하여 서무부원 김학연, 중앙위원에는 이들 외에 최병현이 선임되었다. 이 시기 김학연이 남원군과 전라남북도 순회교사, 김학연의 내수도인 김학화의 수근재라는 도호를 각각 수여받았다. 천도교중앙교회는 교리서를 비롯하여 각종 서적을 출판하기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였는데, 유태홍은 완도의 신명희와 함께 고문으로 추대되었으며 유종석은 부위원장, 김학연 이석호 양평석 선상규 박태윤은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천도교중앙교회와 서적출판기성회의 임원진은 임실과 남원 출신이 많다는 점에서 남원은 분부가 있는 임실과 함께 천도교중앙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것으로 보인다.

1960년 4·19 이후 천도교단은 공진항 교령으로 내분이 시작되었다. 당시 교령 공진항의 과거 자유당 간부 및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대통령선거지도위원 등의 활동은 4·19혁명 이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다고 보고 구파 측에서는 그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고 사퇴하기로 한 공진항 교령이 전국대회를 소집함에 따라 구파 측은 불참하였고, 전국대회는 예정대로 개최되었고, 신파 측 인물로 천도교중앙총부 임원진이 구성되었다.[26] 이에 불만은 품은 구파 측은 이종해를 위원장으로 하는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였다. 사실상 천도교단은 다시 신파 측 천도교중앙총부와 구파 측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로 양분되었다. 그렇다고 수습위원회가 별도의 교단으로 분립하지는 않았다.

---

25) 천도교중앙교회가 발행한 문서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1950년 6월 30일자 『천도교회규약』이 마지막으로 확인된다. 한국전쟁으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후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천도교중앙총부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26) 신임 집행부는 교령 신용구, 부교령 이병헌과 장창걸, 교화관장 주동림, 교무관장 이영복, 경리관장 이광순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구파인 이병헌이 사퇴함으로 인해 완전히 신파 측이 중앙총부를 장악하게 되었다.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는 구파의 기반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의 천도교 지방조직인 교구를 별로도 관장하였다. 수습위원회는 수습대책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1. 종금 이후로 중앙에서 여하한 전국대회가 개최된다 하여도 무조건 소집통지가 오기 전에는 그들의 말하는 바 성미를 납입하여 교인 자격을 얻은 후 대회에 참석하라 함을 거부할 것
2. 연월성미는 1개소에 상납키로 할 것
3.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내년 4월 천일기념 시까지 계속해 줄 것[27]

위의 세 가지 대책은 첫째 신파 측 전국대회에 불참할 것, 둘째 연월성미는 수습위원회에 납부할 것, 셋째는 이종해 위원장이 내년 4월 5일까지 맡아줄 것 등이다. 이 결의에 따라 구파 측 교구는 연성미를 수습위원회에 납부하였다. 수습위원회는 남원교구에 월성미를 수습위원회에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보냈다.

수습위위원회를 지지하는 구파 측 교구는 성미를 중앙총부가 아닌 수습위원회에 납부하였다. 또한 수습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식과 특별기도 등 기타 행사에 참여하였다. 남원교구도 구파 계열이었기 때문에 수습위원회에 성미를 납부하고 각종 행사에 참가하였다.[28] 수습위원회는 김학연을 남원교구장에 선임하였다.[29] 남원교구는 1965년 수해로 인한 피행상황을 수습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하였다.[30] 남원교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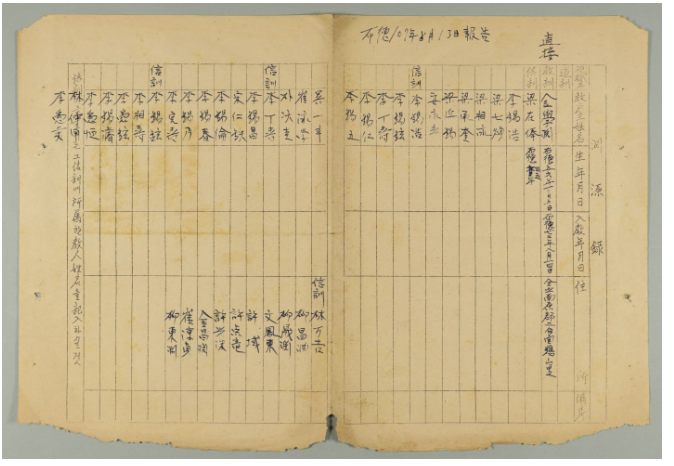
27) 1990, 『동학·천도교약사부총서』, 보성사, 165쪽.

28) 김동규 기증 유물 중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에서 생산한 공문, 성미납부통지서, 위원장의 간찰 등이 상당수에 달한다. 이는 남원교구가 신파로 구성된 천도교중앙총부가 아닌 구파의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9) 「인장」: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장→김학연.

30) 김학연, 「수해민 보고의 건」, 1965년 8월 10일→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장.

참여한 수습위원회는 1968년까지 유지되었다. 남원교구도 이 시기까지 수습위원회와 함께 동행하였다. 그럼에도 이 기간 중 1966년과 1967년 천도교중앙총부에서 천일기념(4월 5일), 지일기념(8월 14일), 인일기념(12월 24일)의 기념 식순을 남원교구로 발송하였다. 1968년부터 천도교중앙총부에서 남원교구로 월성미 납부를 요청하는 통지서 즉 공문을 보냈다.



〈그림 4〉 1966년 작성된 남원교구 관내 연원록

이로 볼 때 1968년 들어 수습위원회는 중앙총부와 춘암 박인호를 선생으로 추대할 것을 요구하였고, 중앙총부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수습위원회는 중앙총부에 합류하였다. 수습위원회가 합류함으로써 남원교구도 자연스럽게 천도교중앙총부에 합류하였다. 이로써 남원교구는 해방 후 천도교중앙교회-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를 거쳐 1960년대 후반 천도교중앙총부에 합류하였다. 참고로 1966년 남원교구 관내 연원록을 통해 남원교구의 현황을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1966년 남원교구 연원록 현황

원주직	교호주	관내 교호주
도훈		
(직접)교훈	김학연	
신훈	양재봉	이석호 양칠환 양상영 양승규 양근석 안영○
	이석호	이석현 (이정수) 이석인 이석오 오일두 최영학 박옥규
	이정수	이석창 송인철 이석륜 이석춘 이석내 이완수
	이석현	이상수 이우현 이석준 이우항 이중갑 이우영
	임만길	유창연 유성연 문봉동 허역 허점룡 허흥수 김순정 유동연

맺음말

이상으로 김동규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한 유물을 통해 남원지역 천도교의 활동(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김동규의 자료 기증이다. 김홍기-김종환-김동규로 이어지는 동학·천도교를 신앙해 온 3대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김동규에 의해 2017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되었다. 기증 유물은 천도교 관련 자료 등 646건 762점으로 2,467매로 상당한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기증 유물은 1906년부터 1986년까지 생산되었는데, 1972년이 77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1969년이 69건, 1965년이 43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30건 이상 되는 해는 1969년(39), 1971년(38건), 1964년(34건), 1966년(33건)이며, 20건 이상 되는 해는 1968년(25건), 1967년과 1974년(22건), 1974년 22건이다. 이들 11개 햇수의 기증 유물은 402건으로 전체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그리고 연도 미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60건으로 적지 않았다. 시기별로는 대한제국기 9건, 일제강점기 65건, 현대 548건, 시기 미상 24건으로 해방 후 현대 시기 기증 유물이 전체의 5분의 4 이상을 차지한다. 생산 주체는

천도교중앙총부(대도주), 천도교중앙교회,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용담연원, 남원교구(종리원) 등이며 대다수가 천도교 관련 기관에서 생산되었다. 이외에 소량의 기증 유물은 전라북도, 남원중학교 등에서 생산되었다. 기증 유물의 유형별로는 공문류가 가장 많으며 문헌류, 증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해 "대다수가 천도교 중앙총부에도 없는 천도교 관련 자료들로 대대적인 조명이 필요" 하다고 평가하였다.

둘째는 기증 유물을 통해 본 남원지역 천도교의 활동이다.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제국 시기이다. 1906년 2월 천도교중앙총부가 설립된 직후에는 〈천도교대헌〉을 제정 공포하였고 종령(宗令)을 기반으로 교단이 운영되었다. 또한 새로운 변화와 발전 즉 교세 확장을 위해 각종 교리서를 발행하였다. 당시 중앙총부는 지방에도 군 단위로 교구를 설치하였는데, 남원지역에는 남원군교구와 운봉군교구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 기증 유물에서 김희철의 봉훈, 3등 포장, 운봉군교구장, 예비교훈 등의 인준장과 포장 등과 천도교단에서 발행한 『동경연의』, 『성훈요의』, 『천약종정』 등 교리서를 통해 남원지역 천도교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기증 유물 중 일제강점기의 남원교구(종리원)은 김성재와 김병구, 김종환 등의 남원교구 임원에 대한 인장을 통한 남원교구(종리원)의 상황, 수운 최제우 탄신 100주년을 맞아 1924년 대신사출세백년기념회 남원지회를 조직 및 성금 모금 활동, 1927년 2월 조직된 신간회의 「신간회 강령 급 규약」을 통한 남원지회 참여, 천도교청년회에서 개설한 교리강습회에 강습생 파견 등의 활동이 확인된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천도교단이 신파와 구파로 분화될 때 구파의 한 축으로 담당하였다. 남원지역 천도교인(남원교구)은 호남 구파 세력의 중심인 임실과 함께 천도교중앙교회를 조직하는데 충추적 역할을 하였고, 주요 임원진으로 참여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1960년대는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에 합류하였고, 기념식과 기도회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물론 공문 수발과 성미 납부 등도 수습위원회와 소통하였다. 1968년

후반 천도교중앙총부와 수습위원회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내분이 해소되자 남원지역 천도교(남원교구)는 자연스럽게 천도교중앙총부의 지방조직으로 합류하였다.

다만 본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방대한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기증자료를 통해 가장 먼저 밝혀야 할 것은 천도교의 분화이다. 천도교 분화는 표면적으로는 1920년대부터 적어도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음을 본 기증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예가 호남지역의 천도교인으로 조직된 천도교중앙교회이다. 또한 그 연장선에서 호남을 포함한 충청, 경기, 강원 지역을 포함한 구파 세력인 천도교중앙총부수습위원회이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살펴볼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방대한 기증 유물을 생산기관 별로 다시 한번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투고일 : 2025. 4. 9. 심사완료일 : 2025. 4. 27. 게재확정일 : 2025. 5. 12.

참고문헌

〈자료〉

「김성재 판결문」
1924, 『대신사출세100년기념회방명록』.
남원군종리원, 1928, 『천도교회교보』.
『남원군종리원사』
『전북신문』
『천도교회월보』

〈단행본〉

1973, 『천도교임실교구사』, 천도교임실교구.
1990, 『동학·천도교약사부총서』, 보성사.
2019, 『동학·천도교인명사전』(제Ⅱ판), 모시는사람들.
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2006,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논문〉

성주현, 2014, 「향암 유태홍의 생애와 민족운동」, 『일제하 민족운동 시선의 확대』, 아라.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Abstract〉

Cheondogyo in Namwon Area Based on Kim Dong-gyu's Donated Relics

Sung, Joohyun*

This paper examines Cheondogyo activities by period based on relics that were don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from the three generations of Kim Hong-ki, Kim Jong-hwan, and Kim Dong-gyu.

The first was don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twice in September and October 2017 by Kim Dong-gyu, which is owned by three generations who have believed in Donghak and Cheondogyo, leading to Kim Hong-ki, Kim Jong-hwan, and Kim Dong-gyu. The donated relics are 646 cases and 762 pieces, including materials related to Cheondogyo, which is a significant amount of 2,467 pieces. By type of donated relics, official documents are the most common, and documents and certificates are included. Regarding these data, "Most of them are materials related to Cheondogyo that are not even in the Central General Administration of Cheondogyo, and a large-scale illumination is needed."

Second, the activities of Cheondogyo in Namwon region, as seen through donated relics, are confirmed from the period of the Korean Empire until the 1960s after liberation. The appearance of Cheondogyo in Namwon region can be confirmed through seals and doctrines issued

* Cheondogyo Central Headquarters Resident Leader

by the Cheondogyo Church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In addition to the activities of the Namwon Diocese, the Japanese colonial era specifically confirms social activities such as Singanhoe, and after liberation, the Cheondogyo Church's disputes are confirmed.

Key word : Cheondogyo(天道教), Namwon(南原), Donated relics, Donghak(東學), Singanhoe(新幹會), Donghak Peasant Revolution(東學農民革命)